

주가	환율	금리
+1.55	-1.10	+0.07
1,366.50 (코스피지수)	958.50원 (원/달러)	4.6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85.28	(-1.51)
다우(23일)	12,116.91	(+114.54)
나스닥(23일)	2,355.56	(+13.26)
닛케이	16,780.47	(-8.35)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9.45엔	(+0.17)
유로-달러 환율	1.2531달러	(-0.62)
3년만기 회사채	4.97%	(+0.07)
클레리	4.47%	(-0.01)

금호아시아나, 미어 베트남 공략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해외진출 제2의 전진기지로 삼고 시장공략에 나섰다.

24일 그룹에 따르면 계열사인 금호건설이 베트남 호찌민시 재래시장에 2억6천만달러를 투입,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도 1억5천만달러를 들여 연간 315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건설의 해외사업은 23년만이며 금호아시아나의 해외공장은 베트남이 4번째이다.

4천124평의 대지위에 25일 착공되는 금호아시아나플라자는 21층의 호텔(객실 305실)과 오피스텔, 32층의 아파트(260가구)가 지어지며 2009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IMF 당시 그룹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10년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합작투자로 진행했으나 베트남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금호가 100% 투자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금호건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과 호텔운영에 관한 체결식을 맺고 호텔 명칭을 '인터컨티넨탈 아시아나 사이공'으로 정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주산암산교육 '매직셈' 인기

주산암산을 통한 계산력을 수학과목에 접목시켜 실력향상을 모색하는 '매직셈(대표 박동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직셈'은 현재의 저학년 수학 교과과정이 시작연산에 비중을 두고 있어 계산력을 다져야 고학년 때 수학에서 다루는 소수·분수·방정식 등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학습도구 역할을 한다.

대한암산수학연구소 관계자는 "주산암산교육이 수학과 연계된 암산수학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재와 지도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13-8112~3.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實利가 없다

① "외제·대형차면 최고"

- 2 명품없으면 '짜퉁'이라도?
- 3 "아파트 이름 바꿔주세요"
- 4 외면당하는 중고시장
- 5 화순 로즈베이크리의 교훈

광주·전남지역의 '겉치레' 지향적인 소비성향은 외제차와 대형차 증가세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24일 통계청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의 2천500cc 이상 대형차는 3만5천777대로 지난해 말보다 무려 13.9%(4천367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승용차의 10.8% 수준으로, 광주에서 대형차의 비중이 10%대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현상은 외제차 판매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말 광주의 외제차 등록대수는 총 3천949대로 4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올들어선 9개월만에 601대가 판매돼 지난해 말보다 18%나 급증했다. 전남도 지난 2000년 이후 1천여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만큼 외제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국산차를 해외에서 판매되는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국적 세탁'까지 최근 등장했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GM대우차와 르노삼성차 등을 해외에서 판매중인 차종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내 성인들의 외제차 선호 경향이 젊은층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겉치레' 소비 성향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외제차는 구매 비용은 물론 수리비도 '폭탄' 수준에 가깝다. 수입차

AS 스트레스에 고액 수리비 후회 막금

<애프터서비스>

광주 수입차 4,000대 눈앞... 9개월새 18% 증가
브랜드 믿고 샀다 잦은 리콜 피해...위화감 조성도

판매량을 기록할 만큼 외제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국산차를 해외에서 판매되는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국적 세탁'까지 최근 등장했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GM대우차와 르노삼성차 등을 해외에서 판매중인 차종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내 성인들의 외제차 선호 경향이 젊은층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겉치레' 소비 성향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외제차는 구매 비용은 물론 수리비도 '폭탄' 수준에 가깝다. 수입차

의 경우 시간당 직원임금이나 부품단가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벤츠ML의 경우 사이드미러 159만원, 발전기 174만원, 방향지지등 커버 34만원으로 3가지 부품 가격이 367만원에 달한다.

반면 현대 테라칸은 총 35만5천원이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모품인 엔진 오일도 국산 고급차는 필터를 포함해 교환 비용이 3만원 미만이지만 수입차는 8만~9만원이 든다.

이에 따라 외제차 증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위화감도 높아지고 있다. 외제차 운전자의 잘못이 더 커도 값비싼 부품값 때문에 피해자인 국산차 운전자



가 오히려 가슴앓이를 하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의 명성만 믿고 덜컥 차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많다. 광주의 경우 주모(32·여)씨가 올 초 엔진 소음으로 불보 차량을 광주공장에 무려 14번이나 수리를 맡긴 끝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모일 관계자는 "수입차업체들의 자발적인 리콜이 지난 2001년 1천225대에서 지난해 1만1천589대로 10배나 늘어나는 등 외제차 선호와 함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무턱대고 외제차나 대형차만 찾지 말고 차량 가격이나 수리비용, 수리 편의 등 실리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리콜이 지난 2001년 1천225대에서 지난해 1만1천589대로 10배나 늘어나는 등 외제차 선호와 함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무턱대고 외제차나 대형차만 찾지 말고 차량 가격이나 수리비용, 수리 편의 등 실리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수입산 농산물 찾아라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찬인)가 위촉한 '우리 농산물 여성명예감시원'들이 23일 지역본부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판별요령을 교육받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광주 재래시장 양극화 심화

공실률 최대 97% 차이

광주지역 재래시장의 공실률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25개 재래시장의 공실률(空室率)을 조사한 결과 빈 점포가 하나도 없는 곳부터 최고

97%에 이르기까지 양극화가 심각했다.

서구 Y복개상가와 Y시장, 북구 M시장 등 9곳은 공실률이 10% 미만인 반면 북구 O시장 등 4곳은 점포 70% 이상이 비었다.

특히 O시장의 경우 점포 77개중 74개가, 북구 Y시장은 57개중 49개가 빈 것으로 조사됐다. 공실률이 40~60%인 시

장은 3곳, 61~70%도 2곳이나 됐다.

반면 Y복개상가의 경우 690개 점포 가운데 빈 점포는 한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재래시장 전체 점포수 3천831개중 빈점포는 610개로 공실률은 15.9%였으며 전국 평균 13.2%보다 높았다.

지역별 공실률은 북구가 22.9%로 가장 높았으며 남구 21.2%, 광산구 17.8%, 동구와 서구는 각각 11.4%와 11.9%로 평균을 밑돌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영암 신복에 태양광발전소 시간당 540Kw 생산...250가구 사용

영암군 신복면에 540Kw/h 용량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다.

(주)탐인프라 디벨로퍼는 24일 김일태 영암군수를 비롯해 정회걸 대표,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 발전소는 태양전지를 통해 빛에너

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발전방식을 채택, 2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540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주)탐인프라는 4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6월 설계에 착수, 3개월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했다. 판매가격은 1Kw당 716.4원으로, 향후 15년간 85

억5천만원 규모의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회걸 대표는 "영암지역은 일사량이 많고 강우일이 적어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라며 "내년에는 영암에 최대 1천K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용역제공에 선도적 기업 -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입 및 경력직 모집 - 감리모집

구분	직책	요건
신입	감리	1. 대학 졸업 2.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3. 자격 취득
	기술	1. 대학 졸업 2.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3. 자격 취득
경력	감리	1. 대학 졸업 2.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3. 자격 취득
	기술	1. 대학 졸업 2.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3. 자격 취득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권리

심는가발 탄생!!

대신님네 프러모가발맞춤

가발 전문점